산업통상자원부 **보 도 자 료** 희망의 새시대 http://www.motie.go.kr

**2017년 1월 20일(금) 석간부터**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(인터넷, 방송, 통신은 1.20(금) 8시 이후 보도 가능)

| 배포일시 | 2017. 1. 20(금) 06:00 | 담당부서 | 산업통상자원부 다자통상협력과 |
|---|---|---|---|
| 담당과장 | 서가람 과장 (044-203-5640) | 담 당 자 | 김연수 서기관 (044-203-5641) |

# 산업부 장관, 제47차 세계경제포럼 참석 결과

□ 스위스 다보스에서 **제47차 세계경제포럼**(World Economic Forum, 1. 17. (화) ~ 19. (목))* **연차총회**(이하 다보스포럼)에 **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**이 참석했다.

* **소통과 책임의 리더십**(Responsive and Responsible Leadership)을 주제로 정·재계, 학계 등 **세계 정상급인사 3천여명 참석**

○ ❶개막식에 참석하여 시진핑 주석의 기조연설을 청취하고, **제조의 미래 이사회**(Board of Stewards Meeting), **세계경제지도자회의***(Informal Gathering of World Economic Leaders) 등 4차 산업혁명과 세계경제질서를 논의하는 각종 세션에 주요 토론자로 참여하는 한편,

❷**몽골** 대통령, **베트남** 총리, **러시아** 부총리, **브라질** 산업통상장관, **아르헨티나** 산업부장관, **인도** 상공부장관, **사우디** 에너지산업부 장관, **미주개발은행**(IDB) 총재, **아프리카개발은행**(AFDB) 총재, **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**(AIIB) 총재, 세계무역기구(WTO) **사무총장** 등 주요국 각료 및 국제기구 수장들과의 1:1 연쇄회동을 개최하고, ❸**지멘스, 솔베이, 비엠더블유(BMW)** 등 세계적인 기업 최고경영자(CEO)와 개별면담을 실시하는 등 광범위한 활동을 전개했다.

* 미국 행정부에 참여 또는 자문하는 정·재계 고위층 인사 등 다수 포함



□ **주형환 장관**의 **다보스포럼 참석결과 및 주요성과**는 다음과 같다.

## ❶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Framework 논의에 주도적으로 참여

□ 우선, 주장관은 2017 다보스포럼의 핵심 이니셔티브 중 하나인 **「제조의 미래 창립 이사회**(Board of Stewards)」에 **이사 자격으로 참여**하여 **4차 산업혁명과 제조의 미래에 대한 대응전략 논의에 주도적으로 참여**했다.

**< 「제조의 미래 이니셔티브」 개요 >**

◈ WEF는 지난해 '4차 산업혁명'을 주제로 한 다보스 포럼 개최 직후, 4차 산업혁명이 제조 전 과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위협요인 대처 및 기회요인 극대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'제조의 미래 이니셔티브'를 시작

◈ 세계 각국의 산업·통상장관(25명), 글로벌 기업 최고경영자(CEO)와 연구기관·대학 총장 등 민간부문 리더(15명)로 이사회(Board of Stewards)를 구성하고, 이사회를 지원하는 자문기구인 미래위원회(Global Future Council)와 운영위원회 설치

◈ 이번 다보스포럼에서 그동안 사무국이 글로벌 전문가, 연구기관과 함께 마련한 ❶ '4차 산업혁명으로 촉발되는 2030년 경제·사회 시나리오', ❷ '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이 공장·기업·산업·사회·개인에게 미치는 영향', ❸ '각국의 4차 산업혁명 준비상황(Readiness) 평가' 등 3개 보고서 집중 논의

○ 이사회에서 **지정토론자**(Discussion Leader)로 나선 주장관은 "현재 일부 산업에만 적용되고 있는 인공지능(AI), 사물인터넷(IoT), 로봇 등 **4차 산업혁명의 기술들을 전 산업, 특히 제조업 전반으로 확산**하여 **생산성 혁신**을 이끌어내야 하며, 이를 위해서는, ❶안전, 프라이버시, 소비자 보호 등에 대한 우려로 4차 산업혁명의 확산을 제약하고 있는 각종 **'규제**(regulations)'와 ❷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**'일자리 대체**(job displacement)' 문제 등 **2가지 핵심 제약요인을 극복해야 한다.**"라고 강조했다.

○ 특히, **한국정부의 대응사례**와 같이 네거티브 방식의 **과감한 규제 개혁**과 비교우위 분야에 대한 연구개발(R&D), 인력, 인프라 등의 **집중지원**, 나아가 다양한 공급기업과 수요기업, 금융기관들간 공동 연구개발(R&D), 표준화 및 초기시장 창출을 위한 **융합플랫폼 구축** 등 민관 파트너십 촉진을 위한 **3가지 주요과제**를 제시했다.

- 주 장관은 4차 산업혁명이 본격화되면서 **실업급여 체계, 근로자 재교육** 등 기존 일자리 지원 대책도 **보다 근본적으로 개선 또는 보완**할 수 있는 획기적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국제사회의 관심을 촉구하였다.

○ 주장관의 발언에 대하여 이사회 참석자들은 "**한국이 규제에 대에 매우 균형 잡힌 접근을 하고 있고, 전기·자율차 얼라이언스와 같은 융합플랫폼도 선도적으로 잘하고 있다"고 평가**하면서 "**다른 나라도 한국의 대응사례를 본받을 필요가 있다"**고 적극적인 공감을 표시했다.

□ **「제조의 미래, 지역전략 모색」**제하의 세션에서 주장관은 인공지능(AI), 입체(3D)프린팅 등 기술발전 등에 따라 생산비 중 인건비 비중이 낮아지면서 선진국으로의 리쇼어링(re-shoring)이 가속화될 전망임을 전제하고,

○ 그동안 **저임금을 비교우위로 개도국으로의 오프쇼어링**(off-shoring) **등을 통해 글로벌 가치사슬에 편입하여 성장해 온 과거의 개도국 발전모델이 앞으로는 지속가능하지 않을 우려가 있다**고 지적하면서,

○ 인구구조(demographic) 변화 측면에서 고령화, 인구감소 등으로 잠재수요가 줄어들고 있는 선진국과 달리, **개도국은 급속한 인구증가와 중산층 확대로 잠재수요가 계속 증가**하고 있어, 개도국은 이 **인구구조 변화를 기회요인**으로 삼아 **향후 개도국 발전전략에 최대한 활용**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.



○ 아울러, 향후 개도국의 성장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방안으로 ❶아세안(ASEAN) 시장통합 개선,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(RCEP) 조기타결 등 대규모 **자유무역협정(FTA)에서의 지역통합 및 무역자유화**를 통해 **시장을 계속 확대**하고, ❷개도국이 세계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가장 실용적이고 효과적인 플랫폼인 **국경간 전자상거래 확산을 위한 다자간 국제규범을 조속히 마련**해야 하며, ❸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의 개발과 확산을 **보다 포용적으로 하기 위한 구체적 논의가 필요**하고, 환경기술, 사이버 보호기술 등 선진-개도국간에 모두 이익이 되는 기술의 공유방안 마련과 지적재산권 보호체계 개편 등을 통해 **개도국으로의 기술 확산을 적극 유도해 나갈 것**을 제안했다.

○ 이와 함께, 급속한 디지털화에 따른 **사이버테러 등에 대한 국제공조가 미흡**하다고 강조하면서, **사이버보안 역량이 취약한 국가의 역량을 보완**해주고, 사이버 공격발생시 복구를 지원하는 **사이버 평화유지군 창설을 제안**하여 많은 국가들의 공감을 얻었다.

□ 세계경제포럼(WEF)측은 한국정부가 각종 세션에서 4차 산업혁명과 제조의 미래에 대해 **그 어느 나라보다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건설적이고 유익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고 높이 평가**하면서,

○ ❶현재 추진중인 **국가별 4차 산업혁명 대응역량 평가시 한국을 사례연구(Case Study) 대상에 포함**하고, ❷스마트공장 1만개 보급을 추진중인 **한국(주형환 장관)**이 4차 산업혁명의 핵심아젠다인 **'중소기업' 분야의 챔피언(일종의 명예대사)'**을 맡아 **향후 국제적 연구와 논의를 주도해 줄 것을 요청**하는 한편, ❸올해 **세계경제포럼**(WEF)이 직접 한국을 방문하여 **4차 산업혁명과 제조의 미래에 대한 공동포럼을 개최**하기로 합의했다.

□ 한편, 주장관은 다보스포럼 참석에 앞서 1.16(월) **독일 인더스트리 4.0의 대표사례이자 세계 최고수준의 스마트 공장**인 **지멘스 암벡(Amberg) 공장**과 **비엠더블유(BMW) 본사**를 방문했다.

○ **암벡 공장 방문**에서 주장관은 지멘스가 스마트공장을 도입하여 **생산성을 획기적으로 개선**하면서도 동시에 **안정적 고용을 계속 유지**하고 있는 점에 특별히 주목하면서, 근로자에 대한 신기술 교육훈련, 사이버보안 문제 등에 대한 관심을 보였다.

○ **비엠더블유(BMW) 본사 방문**에서는 크뤼거(Harald Kruger) 회장을 만나 **전기·자율차 기술·표준협력 확대 및 안전관련 규제조화 방안, 한국 유망 자동차부품업체의 납품 확대방안** 등 한국과의 자동차 분야 협력 확대방안을 논의했다.

## ❷ 주요인사 연쇄회동을 통한 신흥국 등 전략시장 진출 확대방안 구체화

□ 주형환 장관은 베트남, 러시아, 브라질, 아르헨티나, 인도, 사우디, 인도네시아 등 **주요국 정부대표**와 미주개발은행(IDB) 총재, 아프리카개발은행(AFDB) 총재, 아시아인프라개발은행(AIIB) 총재 등 **국제기구 수장들**과의 연쇄회동을 통해 주요 전략시장 진출 확대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.

□ **(중남미) 아르헨티나**의 까브레라(Francisco A. Cabrera) **생산부 장관**과는 **❶ 한-메르코수르(MERCOSUR, 남미공동시장) 자유무역협정 협상을 상반기에 개시할 필요성에 공감하고** 이를 위한 **예비협의를 가속화하기로 합의**하고, **❷메르코수르(MERCOSUR)** 의장국으로서 아르헨티나의 적극적 리더십을 요청했다.

○ **브라질** 페레이라(Marcos Pereira) **산업통상서비스부 장관**과는 **❶한-MERCOSUR FTA협상** 관련, 예비협의 가속화 후 상반기 중 협상개시 등 **개략적인 협상일정에 원칙적으로 공감**하고, **❷**한국산 제품에 대한 **브라질의 반덤핑 규제를 보다 신중하게 운영**하고, **관련 절차도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**하기로 합의했다.



○ **미주개발은행(IDB)** 루이스 모레노(Luis A. Moreno) 총재와는 **한-중남미 산업·에너지협력 파트너쉽 강화**를 위한 기금을 마련하고, 이를 통해 **한국의 발전경험 공유, 친환경 에너지타운** 등 협력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논의했다.

□ **(아시아·중동) 몽골** 엘벡도르지(Tsakhia Elbegdorj) 대통령과 환담하여 정상회담시 합의된 양국간 협력사업을 계속 진행하기로 하였다.

○ **사우디** 칼리드 알팔리(Khalid A. Al-Falih) 에너지산업광물자원부 장관과는 **❶2월에 사우디에서 장관회담을** 개최하여 **'사우디 비전(Vision) 2030' 관련 조선, 자동차 등 제조업 육성과 중소기업 진흥 등 양국 협력사업을 보다 구체화**하고, **❷**투자협력 확대를 위해 **사우디의 주요 협력관심분야 상세 리스트를 교환**하기로 합의했다.

○ **베트남** 응우웬 푹(Nguyen Xuan Phuc) 총리와는 베트남에 투자한 **한국기업**들이 작년의 경우 약 470억불을 수출함으로써 베트남의 **고용창출, 산업발전 및 국민소득 증가에 크게 기여**하고 있음을 강조하고, 향후 **양국간 교역 및 투자협력 확대**를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.

○ **인도** 싯타라만(Nirmala Sitharaman) 통상산업부 장관, **인니** 하르타르토(Airlangga Hartarto) 상공부 장관, **태국** 탄트라폰(Apiradi Tantraporn) 통상장관, **말레이시아** 모하메드(Mustapa Mohamed) 통상장관, **필리핀** 로페즈(Ramon Lopez) 상공장관, **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**(AIIB) 진리춘(Jin Liqun) 총재 등과도 산업·통상·에너지 관련 현안을 논의했다.

□ **(기타) 아프리카개발은행(AFDB)** 아데시나(Akinwumi A. Adesina) 총재와 **아프리카 전력인프라 확충**을 위한 한국과의 협력 확대방안을 논의하는 한편, **아시아개발은행**(ADB) 진리춘(Jin Liqun) 총재, **러시아** 골로데츠(Olga Golodets) 부총리, **이집트** 카빌(Tarek Kabil) 통상장관, **케냐** 모하메드(Adan Mohamed) 산업기업부 장관, **튀니지** 체이크르후(Hela Cheikhrouhou) 산업에너지광물부 장관 등과도 산업·에너지분야 협력방안을 논의했다.

## 3 한국상황에 대한 우려 불식 및 투자협력 확대기반 마련

□ 주장관은 **최근 한국상황**과 관련하여, **정부정책은 한치의 흔들림이 없고 향후 제도의 선진화, 기업의 투명성 제고 등 경제체질이 강화되는 계기**가 될 것이라고 적극적으로 설명하였다.

□ 주장관은 또한 지멘스, 솔베이 등 세계적인 경영인(CEO)과의 일대일 면담을 통해 **미래기술 협력, 우리나라에 투자확대** 등 협력방안도 심도 깊게 논의했다.

○ 지멘스의 케저(Joe Kaeser) 회장과는 한국 **스마트공장 보급사업에 지멘스의 참여 확대**는 물론, 핵심기술의 공동개발과 국제표준 제정을 위한 협력에 합의하였고, **헬스케어, 풍력발전 분야 증액투자** 등 지멘스의 대한 비즈니스 확대방안을 논의하고,

○ 솔베이의 클라마디유(Jean P. Clamadieu) 회장에게는 전기차, 항공부품 관련 **첨단 신소재** 분야에서 **대한 투자확대**를 요청했다.

○ 아울러 기업들이 제기한 **투자애로**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**신속히 해결방안을 모색**하겠다고 밝혔다.

□ 한편, 주장관은 1.20(금) 다보스 포럼 계기 개최된 세계무역기구 **통상장관회의**(WTO Ministerial Gathering)에 참석해 제11차 세계무역기구(WTO) 각료회의* 성과도출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.
(보도자료 별도배포 예정)

* 제11차 WTO 각료회의(MC-11) :'17.12.11-14,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

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다자통상협력과 서가람 과장(☎ 044-203-5640), 기후변화산업환경과 문양택 과장(☎ 044-203-4240)에게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.